

# '순풍파랑, 바람 타고 파도 넘어'展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5월 28일까지 '배' 주제 공동개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5월 28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순풍파랑, 바람 타고 파도 넘어'展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본관 리모델링 후 처음 개최하는 2023년 기획전시는 해양문화를 상징하는 '배'를 주제로 기획됐으며, 박물관의 초석이 된 다수의 기증 유물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전시 제목인 순풍파랑(順風破浪)은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뜻의 고사성어 '승풍파랑(乘風破浪)'에서 비롯됐다. 배와 바다의 이미지, 새롭게 출발하는 박물관의 포부, 신년을 맞아 순조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모형 배 13점과 박물관 소장 기증유물 60여 점을 전시한다. 이 밖에 사진, 영인본, 영상 자료를 통해 인류의 문화 발전을 함께한 배와 항구도시 군산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본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죽배 타고 노를 저다'는 초창기 배의 형태와 군산의 선사



'순풍파랑, 바람 타고 파도 넘어'展 포스터

시대를 살펴보고, △2부 '뚝을 달고 더 멀리'는 해양교류의 중심지로 기능한 군산을 조명

한다.

이 밖에도 정화의 원정, 신항로 개척 시대 등 배의 발전으로 변화한 세계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했다. △3부 '배를 타고 바다를 지키다'는 거북선과 판옥선, 진포대첩, 군산진 자료를 바탕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던 군산의 역사를 보여준다. △4부 '빠르게 더 빠르게'는 동력 기관의 개발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진 시대를 이야기하고, 키, 돛, 남포등과 같은 근현대 선박 유물을 볼 수 있다. △5부 '항구의 사람들'은 전북 유일의 항구도시 군산이 가지는 의미와 군산항의 변화 과정을 유물과 영상을 통해 보여준다.

박물관 관계자는 "본관 리모델링은 초심으로 돌아가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유관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확보하고, 연구 지원을 넓혀가고자 한다"면서 "지역사·세계사·해양문화를 아우르는 주제인 '배'를 주제로 한 이번 기획전시가 항구도시 군산의 의미를 재고하고,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완판본문화관, 소장 유물 해제집 발간

'완판본, 고전 책방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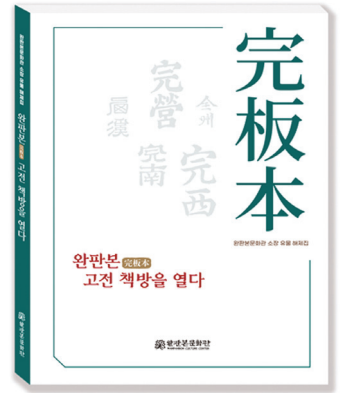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은 소장 유물 고서 100여 점의 사진, 서지정보가 담긴 해제집 '완판본, 고전 책방을 열다'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제집이란 책의 저자, 내용, 체제, 출판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 글을 엮어 놓은 책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완판본 고서 해제집 출간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2년 지역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약 7개월간 서지 분류와 조사, 출판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특히 이번 해제집은 전라감영에서 간행된 전라감영본, 판매용 책인 완판본각본, 한글 고전소설본 등으로, 완판본을 분류하고 사진, 해제와 함께 완판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논고도 포함됐다. 완판본문화관 소장 유물을 기반으로 지역 출판문화의 역사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소장 유물의 조사와 고서 해제는 한 국국학진흥원 권오덕 박사가 담당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이태영 명예교수의 '전라감영의 출판문화와 완판본의 위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옥영정 교수의 '조선시대 출판문



화와 방각본의 특징' 논고로 완판본 관련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도 더했다.

안준영 관장은 "완판본문화관은 전주의 융성했던 기록문화를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지켜가는 곳"이라며 "완판본, 고전 책방을 열다"를 발간하게 된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전주의 기록을 담기 위해 서였다"고 전했다. 이어 "완판본문화관 소장 유물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써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무주곤충박물관, 내실있는 운영 빛났다

문체부 주관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서 인증기관 선정

무주곤충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 30일까지다.

2016년 11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공립박물관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제재하고 공립박물관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서면조사와 현장평가,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공립박물관을 선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전국 공립박물관 272개를 대상으로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관리 적정성 △지표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공적책임 등을 평가해 대상의 52.1%인 139개 공립박물관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중 전라북도의 경우 20개의 인증 대상기관 중 11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무주박물관은 2017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 후 이번에 처음으로 공립박물관으로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무주곤충박물관은 설립목적의



달성도와 자료의 수집, 관리의 충실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 받아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무주군시설사업소 반디휴양팀 서숙경 팀장은 "무주곤충박물관이 첫 평가에서 평가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박물관의 공적 책무 이행과 내실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무주곤충박물관을 운영한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무주곤충박물관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이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반디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친숙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북 디지털 융복합관광사업 협업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오는 25일까지 전라북도 디지털 융복합관광사업 협업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간의 협업으로 웰니스, 생태환경, 문화·예술 관광산업 분야에 혁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 관광 콘텐츠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디지털 기술 보유 기업이 한 팀으로 공동 참여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총 3개 팀 내외의 협업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팀에는 최대 2,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16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jgh123@j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위촉교수 공모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정정희)는 오는 24일까지 2023년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위촉교수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2일 센터에 따르면 '성평등 전북, 행복한 여성과 가족'이라는 미션 하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기능기술훈련과정 등 4개 분야 60여 과목을 연 4회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한식조리기능사, △기초드로잉, △가공, △글쓰기 지도, △시낭송, △전통차(수제침, 건강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전통악기(가야금, 장고), △디베이트 지도사, △이

모터폰 제작, △퍼스널컬러 전문가, △발반찬 만들기, △디카세상(사진, 인스타), △현대무용, △자존감 코칭전문가 등 15개 지정 및 기타 프로그램이다.

관련 서류를 센터 홈페이지(www.jwec.re.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우편 및 이메일(edu@jwec.re.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분야별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혹은 수료자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출강하고 있거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혹은 관련 분야에 상당한 정도의 강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장은성 기자

## 전지훈련 최적지 '태권도원', 만족도 ↑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원이 올해를 통째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겨울 전지훈련도 27개 팀 4천여 명이 방문,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태권도원을 찾은 선수단은 대한태권도협회 꿈나무 대표팀, 체육영재 특별훈련팀,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을 비롯해 학교와 도장 등 전국 각지에서 찾고 있다. 현재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 KFH&강철&도성품새 연합팀 등 많은 전지훈련 선수단이 훈련을 진행

중이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

태권도원은 선수단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훈련장과 체력단련장, 세탁실, 사우나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호구와 훈련 기자재도 제공하고 있는 등 선수들이 태권도원의 안전하고 우수한 시설에서 전지훈련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태권도원을 방문한 선수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훈련 여건과 식사, 질·친절도 등의 서비스, 시설의 청결 등 만족도 설문에 5점 만점 중 4.68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선수와 지도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